

# '아름다움-추함' 절대적일까



### 미의 법문

야나기 무네요시 지음  
최재욱·기정희 옮김  
이학사 | 1만2천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을 달린다. 일본인으로 조선의 예술을 사랑해 식민통치를 반대할 만큼 양심적인 지식인이거나 호도된 한국인의 미의식을 정착시킨 사람.

바로 일본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다. 그는 누구도 '예술품'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도자기나 공예품을 '민예(民藝)'라 칭하고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민예운동의 창시자로, 일본 미술의 발전자라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야나기 무네요시는 1916년 합천 해인사와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을 답사한 후 조선 예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조선을 동양 민예의 총화라 여겼고, '조선의 소반' '조선의 항아리' '석굴암의 조각에 대하여' '조선과 그 예술' 등 조선의 미학에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또한 당대 일본 총독부의 광화문 말살정책을

다. 그의 민예 운동이 오리엔탈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직관과 심미안을 강조함으로써 정작 그 민예품을 쓰는 민중들은 이해할 수 있는 미의식을 정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한국의 미'로 내세운 비애(悲哀)와 애상(哀傷)이 나약한이나 패배의식, 식민지 숙명론 등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이처럼 야나기의 미의식은 한때는

로, 야나기 자신이 '미(美)에 관한 나의 사상을 총괄한 하고자 했다'고 할 만큼 그의 미학사상의 근본을 받추해 볼 수 있는 저술이다.

이들 책에서 야나기는 예술이 서양사상을 중심으로 해명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동양적 체험에 입각한 동양 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미의식의 전거(典據)를 야나기는 불교에서 찾았다.

"가장 원숙한 동양적 관점은 불교사상, 특히 대승불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사색으로 미의 세계를 반성함으로써 서양인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진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나기는 동양 전통의 미바탕에는 불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추(美醜)란 상대적이고 조차적이고, 인간의 분별에 의한 가치판단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초월한 불성(佛性)으로 돌아가는 방편으로서의 미학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예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내가 이 영역에 마음이 끌렸던 것은 처음부터 미예품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범인(凡



일본 민예 운동의 창시자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의 사발에서 '범인(凡人)성불'의 가능성을 보았다. 사진은 일본 대덕사 고분암에 소장된 기자에용 다란.

인이 범인인 채로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탄이 있습니다. 즉 미의 나라에서도 중생제도의 비원이 완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민예를 통해 어렵듯하게나마 확인했던 것입니다."

도자기나 공예품을 통해 '범부성불(凡夫成佛)'이나 '불이(不二) 사상'을 알아내려 했던 미학자이자 종교철학자 야나기 무네요시, <미의 법문>은 아픈 몸을 병상에 누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미학을 정리하려 했던 야나기의 집념과 심미안(審美眼)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한국의 미의식 '비애·애상'으로 정립해 양극단 평가받는 日학자 야나기 미학사상의 근본 '대승불교'서 찾아

저지하려 노력했고 일본의 조선 수탈 정책과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9월 야나기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추서했고, 그의 민예관은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계승돼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미의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야나기의 미의식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

'야나기 신드롬'으로 불리며 숭상 받았고 오늘날에는 '극복'이 학계의 주요 과제로 거론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출간된 <미(美)의 법문(法門)>은 야나기의 미의식이 그 사상적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이 책은 불교미학에 관한 4부작 <미의 법문> <무유호추(無有好醜)의 원> <미의 정도> <법과 미>를 번역한 것

## 마음의 병 치유하는 '자비 명상'



### 내 안에서 찾는 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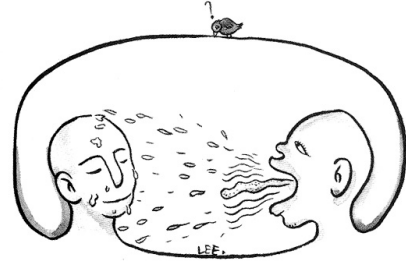
마가스님 지음  
이주영 글  
이승구 그림  
무한  
1만3천8백원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나 뉘그러리를 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뉘그러리만으로 해결하기 역부족일 땐 어떻게 할까? 아마 한 번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기를 원할 것이다.

마가사 포교국장이자 템플스테이 진행자인 마가스님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이주영씨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불교 상담을 제시한다. 이들은 <내 안에서 찾는 붓다>에서 심우도(禪牛圖)와 <법구경>을 바탕으로 한 '자비 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자비 명상'은 수행자가 잠깐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치료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상담 치료 과정과 흡사하다는 데서 착안한 상담 기법이다.

"상담은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스님은 내면의 상처를 이해하고 잘 보듬다 보면 근원적 치유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외부나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아픔과



이승구 교수(한남대의 심학)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또 다른 상담자다.

고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면 타인이 보이게 시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 10가지는 무엇인가", "화를 내고 난 후 어떤 마음이 드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 가며 나와 가족, 이웃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명상법과 수행법을 소개해 일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차별과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에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찰에 '이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부처님오신날이면 성당이나 교회에서 인공 사찰에 축하 화환을 보내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종교 화합'은 아직 요원하기만 해 보인다. 법회나 목회 시간이면 자신의 종교의 우수성을 역설하고 상대 종교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포교나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금강경> 독송 수행을 해 온 김원수 교수(충무대는 이제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함께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금강경>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며, 아상(我相)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자들이 이 화두를 깨치고 마음 속 벽을 허무다

면, 불교만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가르침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금강경>에 담긴 진리를 함께 배워보자는 순수한 제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책을 쓴 김교수는 20대에 특목운동가이자 성직이었던 백성욱 박사를 만나 3년간 종교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포교나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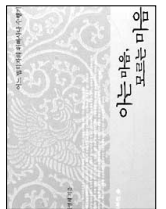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 공경원 | 9천원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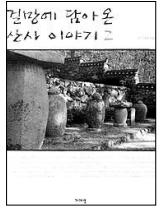
■ <바로 이것!>(김태환 지음, 침묵의향기, 9천원) = 부산 무심선원 김태환 원장이 월간 <선원>에 연재했던 글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신심명>은 승전 대사가 지은 선시(禪詩)로 146구 73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짧은 글 속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선의 근본 사상을 담고 있어 '문자로 서는 최고의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경전. 지은이는 <신심명>의 각 구절마다 나름의 해설을 달아 승전 대사가 말하고자 했던 참 뜻을 풀어놓았다.



■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황영재 지음, 행복한출, 9천원) = 현재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 수행 중인 법학자 황영재의 위빠사나 수행 체험기. 지은이가 지난 5년간 직접 수행을 하며 느꼈던 감상과 수행 과정을 기록한 1장과 위빠사나 초보 수행자를 위한 안내서적인 2장으로 나뉜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수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없애준다. 지은이는 "초보자들을 위한 수행 일문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 <결말에 답이 있는 산사 이야기 2>(임윤수 지음, 가야넷, 1만3천원) = 공학박사 임윤수씨가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칼럼 모음집. 이번 책에서는 '높고 깊은 곳에 위치한 절' '마애불이 있는 절' '섬 속의 절' '지장도량'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28개 사찰을 돌아보고 있다. 마라도 기원정사, 울릉도 대원사, 거금도 송광암 등 쉽게 찾아가 볼 수 없는 절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입적한 석주 스님과 승상 스님, 정일 스님의 다비식 현장도 함께 담았다.



■ <인도건축기행>(안영배 지음, 다룬세상, 1만8천원) = 타미라 할과 아잔타 석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을 지낸 지은이는 인도불교미술의 정수라 불리는 아잔타 석굴과 인도 전통양식이 집대성된 라자푸르 아디타 사원 등 인도 건축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사진과 평면도를 통해 펼쳐 보인다.



##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재능을 통쾌하게 깬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 보이는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 수록 내용 ■

- 공화이야기
- 성기가 말을 안 들어요
-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 의처중 이야기
- 바꿔 놓고 생각하기
- 실수의 흔적
- 저제와의 불륜
- 육체란 무엇인가?
- 입시 이야기
- 성형수술 이야기
-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 세 번 결혼한 검사님
- 인태와 섹스의 비밀
-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 넌지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 자신의 저지를 결하히 인정하라
- 운명을 바꾸는 법

전 3권 완간 기념 할인 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당 10,000원

전 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 책속 부록 ■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 날짜로 손(掌성) 보는 법 ▶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명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미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滋潤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라도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신국판 | 319쪽 | 값 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水土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 2612-3358  
전화: 02)335-7883 팩스: 02)335-7858 전자우편: babosae@kornet.net